



국내 핀테크 시장은 기존 금융기관 중심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월 10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4차 IT·금융 융합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내 핀테크 시장 육성전략 규제 환경 최소화하고, 고객 신뢰 확보해야

글 로벌 IT기업이 금융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구글·아마존·애플은 서비스 플랫폼과 고객 기반을 활용해 지급결제 시장에 진출했고, 알리바바·텐센트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개설했다.

그동안 국내 시장은 ▷유사수신행위 금지에 따른 클라우드 펀딩 제한 ▷금산분리에 따른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제한 ▷대면 실명확인 의무로 인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제한 ▷전자금융거래 규제 등으로 인해 핀테크 기업이 성장할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

글로벌 핀테크(Fin Tech) 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SNS·포탈·전자상거래 등의 플랫폼 사업자가 브랜드 인지도·자본력·IT 노하우를 기초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핀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규제 환경이 지속된다면 핀테크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이 글로벌 기업에 잠식될 우려도 있다.

송금·결제·대출중개 분야에 집중돼 있는 국내 핀테크 시장은 향후 빅데이터 분석, 금융플랫폼 개발 등의 분야로 확대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은행·카드사 등 전통 금융기관이 IT기업과 업무 제휴를 발표하고, 금융권의 전문인력이 IT기업으로 이직하는 등 핀테크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금융당국도 올해 초 IT와 금융의 융합 관련 규제 환경 개선을 통한 핀테크 서비스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창구거래·대면거래 중심의 오프라인 금융을 신속성·쌍방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모바일 환경에 맞추고 ▷혁신 핀테크 기업에 자금·법률·행정지원을 하며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또한 사전규제를 최소화해 핀테크 기업이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겪어야 하는 사전 보안성 심사과정도 단축시킬 계획이다.

금융보안이 최우선 과제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정보보호 및 금융보안은 핀테크 기업의 존립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 우리는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상당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른 경험이 있다. 핀테크 기업의 취약한 보안과 서비스로 인해 예금손실, 금융상품의 불완

전 판매, 정보유출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핀테크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핀테크 기업의 기술혁신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연관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창업지원기관·산학연구소의 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IT와 금융기관이 제휴해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 리스크 관리에 관한 상호간의 역할 분담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둬야 금융사고 발생 시 분쟁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

핀테크 정책의 최대 현안은 어떤 조건 하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과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시도는 엄격한 금산분리, 은행의 최저 자본금 요건, 정보보안 우려로 실행되지 못했다.

지금처럼 산업자본 및 동일인의 은행 지분제한을 엄격히 적용하면 기존 금융기관 이외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찾기 어렵다. 금융기관은 기존 영업기반 침해를 우려해 온라인뱅크의 확장 수준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금융기관의 참여만으로는 금융산업의 파괴적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체에 빠진 금융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금산분리를 완화해 정보통신기업 등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되 모기업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재무건전성 감독,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최소자본금 규제도 지방은행에 적용되는 250억원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혁신기업의 신규 진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플랫폼을 구비한 정보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은행업에 진출하는 경우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고객유치, 금융상품의 교차 판매, 복합금융서비스 제공, 판관비 절감, 온라인 채널 활용 등을 통해 수익성 제고와 금융산업 혁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①



송창현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컬럼비아대 법과대학원 석사(L.L.M.), 미국 UC버클리 법과대학원 법학박사(J.S.D.),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M&A·기업소송·정부규제)